

현대주거공간에 표현된 전통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색채와 마감재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Korean Traditional Characteristics in Modern Residences

- Focus on Colors and Finishing material -

이용범* / Lee, Yong-Beom

오인욱** / Oh, In-Wook

Abstract

Finishing materials and colors which were expressed in the space is an important factor to decide the imagination of the space. Therefore if we analyze and spotlight the space with that factors again, we will readily know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expressed in our living space.

A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the traditionality like national thoughts, customs and behavior patterns is changed, arranged and expressed in the korean housing space in the 21c on the finishing materials and colors. Though this study we can know that the traditionality which are expressed in modern housing spaces shows with accommodating to characteristic that is expressed in traditional housing spaces.

키워드 : 전통성,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 색채, 마감재

Keywords : Traditionality, Traditional Interior Elements, Colors, Finishing material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이란 일반적으로 한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서 지난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적 맥락 즉 사상이나 관습, 행동양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전통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적용하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과거의 사회적 문화와 선조들의 정신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를 재조명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의가 있을 수 있으며, 과거를 통해 보다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으며, 국민의 가치관과 생활방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그에 따른 의식주 양식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었다.¹⁾ 특히, 주거공간은 우리생활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옛 선조들의 생활과 삶의 지혜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의 영향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조금은 동떨어진 공

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전통주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곳에서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가 병행 되고 있고, 또 일부 연구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통성에 대한 해석이나 표현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이르면서 상당히 많은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주거공간에서 전통성이라는 민족의 사상, 관습, 행동양식이 21세기인 현시점에서 어떻게 변형 또는 정리되어 표현되고 있는지를 색채와 마감재 중심으로 연구하여 정리하려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전통주거공간에 나타나는 표현적 특성을 오늘날 사회특성에 맞게 정리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통성이 색채와 마감재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서 크게 문헌 조사와 사례조사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첫째, 실내공간요소와 색채와 마감재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을 조사한다.

* 정회원,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명예회장,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1) 한국 문화 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개발보급 연구방안, 1991, p.54

둘째, 조사한 내용을 전통사례조사에 적용하여 분석한 후 분석틀을 마련한다.

사례조사는 현대 건축물 중에서 작가의 의도에 의해 전통성이 표현되어진 건축물을 선택하여 실제 공간의 바닥, 벽, 천장의 마감 재료와 색채의 조화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선택하였다.

1.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전통성이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례조사에 있어서 전통성에 대한 표현을 작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는 매우 힘들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통성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작가 개인적인 전통성 표현이라도 전통성을 고려하여 실내를 표현하였다면 전통적인 실내공간이라고 인정하다. 또한 실내공간을 찍은 이미지에 나타난 색채나 마감재는 카메라의 각도나 자연채광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나 효과에 의해 실제 색채나 마감재 재질이 사실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되었다.

2. 전통성개념의 일반적 고찰

2.1. 전통성의 개념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되었다.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통에 대한 각 논의자들은 서로 약간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에 대한 논의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²⁾

- 첫째, 과거의 모든 유산을 전통으로 본다.
- 둘째,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온 것만을 전통으로 보고자 한다.
- 셋째, 현재까지 이어오나 계승할 만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만을 전통으로 보고자 한다.

이중 세 번째 입장은 가장 포괄적으로 앞의 입장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어 전통서의 개념을 세 번째 입장에 준하는 정의를 사용하겠다. 따라서 전통이란 개념은 한 사회집단의 역사 발전 속에서 그것의 바탕에 형성된 규범적 힘³⁾으로서 현대에도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과거로부터의 문화적 유산⁴⁾을 말한다.

최근에는 전통성에 이어 한국성이라는 개념도 활발히 논의되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미적인 측면만 본다고 해도 한국성은 공식적 측면이라면 전통성은 통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전통성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2)박영천, 한국건축 전통론 소고, 공간, 1975.9, pp.121~122.
3)송민구, 한국의 옛 조형의미, 기문당, p.222.
4)이상해, 전통과 건축문화: 그와 상반되는 보편적인 문제점들, 건축과 환경 8806, p.100.

을 알 수 있다.

2.2. 내부요소

(1) 전통내부요소

<표 1> 전통주택 실내구성요소

실내요소	개념	
바닥	온돌	아궁이에 불을 대서 구들장을 데우고 다시 방바닥을 데워 그 열이 인체에 직접 전달되기도 하고 실내의 공기를 데우는 장치로서, 열의 전도 · 복사 · 대류를 이용한 한국전통의 난방방식이다. 마감은 장판지마감, 천마감, 솔방울마감, 은행잎마감 등이 있다.
	미루	바닥 면에 나무 널을 깔 것을 미루라고 하고, 미루 밑을 뚫어 통풍이 잘되도록 한 형태로 난방이 없다.
벽	벽의 종류에는 심벽, 내심벽, 외평벽, 방화장벽 등이 있다. 방의 벽은 벽지로 도배하여 수장재가 보이지 않으나, 미루의 벽은 최칠로 마감하여 기둥 · 인방 · 문선 등의 수장재가 노출되어 보이는 형태가 많다.	
천장	한옥에서는 지붕을 형성하는 구조물이 안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천장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나무로 반자들을 짜서 종이를 바르거나 천장틀을 만들고 널을 붙여 만들기도 하였다. 천장은 구성에 따라 연등천장, 반자천장, 삿갓천장으로 구분되며, 반자천장은 그 꾸밈에 따라 종이반자, 평반자, 우물반자로 분류된다.	

(2) 현대내부요소

<표 2> 현대주택 실내구성요소

실내요소	개념
바닥	천장과 함께 공간을 구성하는 수평적 요소로서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에서는 그 의미가 다른 서구의 문화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벽	공간을 에워싸는 수직적 요소로 수평방향을 차단하여 공간을 형성하는 기능과 자연, 재해, 타인 등 외부세계에 대한 침입 ⁵⁾ 을 방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바닥과 천장이 한 면을 사용하는데 반해 벽은 네 면 전체를 사용하므로 구조체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어서 항상 장식의 초점이 된다.
천장	건축물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수평적 요소인 지붕은 내부공간을 태양, 비, 눈 등 자연으로부터 보호하며 내부공간을 이중 차단하여 천장을 발생시킨다. 천장은 시각적 흐름이 최종적으로 멈추는 곳이기때 지각의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내부공간의 어느 요소보다도 조형적으로 가장 자유롭다 ⁶⁾

3. 실내구성요소

3.1. 색채의 일반적 고찰

(1) 색채의 3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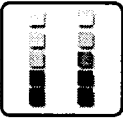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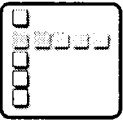

색채의 심리적인 속성은 색상 · 명도 · 채도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색채반응과 관련된다. 인간이 색채를 보고 느끼는 요인은 빛의 파장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색상(hue)요인으로 색상은 물체의 표면에서 선택적으로 반사되는 색 파장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⁷⁾

5)오인욱, 실내디자인방법론, 기문당, 2001.8,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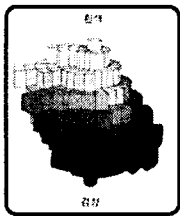
6)Ibid, p.22.

7)박영순 외 4인, 주거공간에 사용된 실내마감재 유행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제12호, 1999.7,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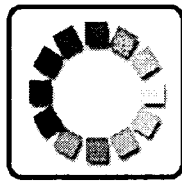
<표 3> 색채의 3속성

속성	이미지	정의
명도		명도란 글자 그대로 색의 밝은 정도를 말한다. 같은 빨강이라도 명도가 변하면 밝은 빨강, 어두운 빨강으로 달라져 보인다. 무채색은 명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은 흰색, 가장 낮은 색은 검정이다. 명도는 흰색에 가까울수록 높고 검정에 가까울수록 낮다라고 표현한다.
채도		채도란 색상의 선명한 정도를 말한다. 채도가 낮으면 '탁하다'라고 표현하고, 높으면 '선명하다'라고 표현한다. 채도가 높을수록 색깔은 강하고, 낮을수록 색깔은 없어지고 나중엔 색깔이 전혀 없는 흰색, 검정, 회색의 무채색이 되고 만다.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은 순색이며 이것에 무채색을 섞는 비율에 따라 색은 늘어진다. 그와 동시에 채도는 낮아진다.
색상		색상은 색의 차이, 색상환은 이것을 차례로 배치해서 원으로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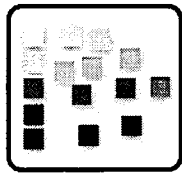
이러한 3가지 속성을 입체로 나타낸 것을 색입체라 하며, 세로축이 명도, 가로축이 채도 그리고 구를 가로로 반을 나눈 단면의 원주를 색상(환)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면체의 색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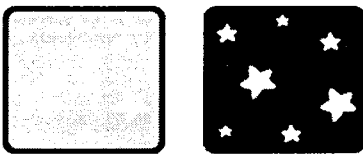
<그림 2> 색입체의 가로단면 (색상)



<그림 3> 색입체의 세로단면 (채도와 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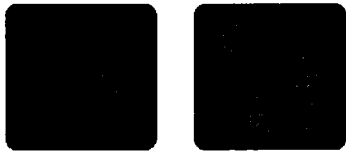
(2) 색채의 효과

① 명도대비 : 명도대비는 명도가 다른 색을 조합했을 때 명도가 높은 색은 보다 높게 느껴지고 명도가 낮은 쪽은 보다 낮게 느껴지는 효과를 말한다. 그리고 이 효과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합한 색



<그림 4> 명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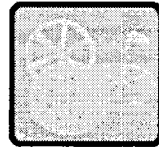
의 명도차가 클수록 좋다.



<그림 5> 채도대비

② 채도대비 : 어떤 색의 주위에 그것보다 선명한 색이 있으면 그 색의 채도는 원래 가지고 있는 채도보다 낮게 보인다. 이것을 채도대비라 하며 채도차이가 클수록 효과도 커진다. 돋보이게 하고 싶은 색은 주위를 탁하게 하면 된다.

③ 색상대비 : 색상대비란 조합된 색에 의해 실제의 색과는



<그림 6> 색상대비

달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조합된 색이 색상환의 위치에서 동떨어진 색일수록 서로의 색상은 강해 보인다. 그래서 색상 대비는 보색끼리 조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8)

<표 4> 색상의 효과

	색상	명도	채도
느낌	난색: 자극적 한색: 정적	밝은 색: 명량 어두운 색: 평온한 것에서 우울한 것 명도대비: 경계심을 줌	높은 색: 강함 낮은 색: 평온
주의	난색이 한색보다 더 크다.	아주 밝은 색이나 아주 어두운 색이 시선을 끄는 경향이 있다. 대비나 갑작스런 변화가 더 효과적이다.	높은 색: 주의를 끈다.
크기	난색: 물체를 실제보다 크기가 커보이게 한다.	밝은 색은 물체를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하여 어떤 색이 배경과 강한 명도 대조를 이루면 같은 효과를 낸다.	높은 색: 물체를 실제보다 크기가 커 보이게 한다.
거리	난색: 물체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함. 한색: 뒤로 물러나는 듯이 보이게 한다.	밝은 색: 뒤로 물러나고 어두운 색은 앞으로 튀어나온다. 명도가 강하게 대조되면 역시 물체를 튀어나와 보이게 한다.	채도가 높은 색은 외관상의 거리를 가까워 보이게 한다.
외형 선이 나운 곡선	난색은 한색보다 외형 선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준다. 대조색은 유사 색보다 외형 선을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해준다.	명도 대비는 윤곽선을 강조할 때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채도대비는 외형 선을 강조해 준다.

3.2. 마감재의 일반적 고찰

(1) 마감재의 종류와 효과

1) 전통마감재의 종류와 개념

<표 5> 전통마감재의 종류와 개념

실내 요소	마감 재료	개념
바닥	장판지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종이마감으로 도배가 끝나면 길들이기를 하여 내수성을 갖게 했다.
	천	초배지 위에 비단을 선택하여 바르는 것으로 비단 대신 무명천으로 바르기도 한다.
	솔방울	솔방울의 솔진을 이용한 방법으로 오래 쓸수록 붉은 기가 더해 호박색으로 변한다.
	은행잎	은행잎이 무성할 때 많이 따서 큰 절구에 짓뎠어 잘것 없이 얹히고 매끄럽게 하여 반죽처럼 만든 후, 방바닥위에 한 치(3cm)정도 두께로 펴 바른다.
	솔가루	소나무 껍질을 기루로 만들어 곱게 천 후, 수수가루로 쓴 풀을 솔가루에 섞어 방바닥에 두껍게 바르는 기법이다.
벽	기타	흙마감, 질자리마감, 대자리마감도 있다.
	종이	벽을 종이로 도배하는 것으로 보통 세 겹을 발랐다.
	천	벽을 천으로 도배하여 마감한 것이다.
천장	회	토벽 위에 강회(생석회)를 덧바른 것이다.
	종이	주로 온돌방에 종이반자에 사용된 것으로 수평의 반자들을 만든 후 초배지를 바르고 그 위에 중배지와 정배지 순으로 벽과 같이 세 겹을 발랐다.
목재	우물반자	바둑판과 같이 우물 정(井)자형을 연속시켜 반자들을 짜고 그 반자 우물에 네모반듯한 청판을 끼워 막음한다.
	평반자	반자들 사이에 울거미를 짜 수평으로 설치하고, 장마루를 짜듯이 널빤지나 둥근 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건너치른 것이다.

8)http://www.colorworld.pe.kr/

2) 현대마감재의 종류와 개념

<표 6> 현대마감재의 종류와 개념

실내 요소	마감 재료	개념
바닥	석재	슬래이드나 대리석 같은 돌, 벽돌, 지기타일로 된 바닥은 재료비는 비싸지만, 오래가기 때문에 두루 쓰인다. 최근에는 콘크리트가 널리 쓰이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잘 안 띄는 기초 바닥재로 쓰인다.
	목재	가장 널리 쓰이는 단단한 바닥재는 목재인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재료이다. 비싸지 않은 소나무에서부터 고가인 호두나무 쪽마루에 이르기까지 목재의 가격은 다양하며 수선 및 재미감 처리가 꽤 쉬운 편이다.
벽	회반죽	수세기에 걸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벽 마감재이다. 가장 큰 장점은 이음새를 남기지 않고 부드럽게 모든 표면을 덮는다.
	페인트	가장 융통성이 있고, 상당히 강인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띄지 않게도 할 수 있는 재료이다.
	벽지	단순히 색만 칠해진 종류에서부터 시내에서 다른 공간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정교한 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비닐	대부분의 벽지 보다 비싸지만, 내구력이 더 강하다. 최근에는 벽지와 비슷하게 문양이 있는 것도 있다.
	직물	벽에 쓰이는 직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재로 벽의 길을 바르는 직물이고, 다른 하나는 벽 위에 느슨하게 늘어뜨리는 것이다.
천장	오늘날에는 회반죽이나 몇 종류의 조립널판 또는 목재나 벽지 등과 같이 여러 가지가 사용된다.	

4. 실내공간의 색채와 마감재 사례분석

4.1. 전통실내공간의 표현특성

3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색채와 마감재의 특성을 전통주거공간의 사례에 적용, 분석하여 전통성의 표현특성을 찾아내려 한다. 이러한 전통성 표현특성은 현대주거공간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이 되어질 것이다.

<표 7> 전통주거공간 사례조사

작품명	실내이미지	표현특성
양동마을 관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도대비를 통하여 경계성을 준다. ■ 2가지 색상을 사용함. ■ 명도의 차를 이용함. ■ 자연 재료를 사용함. ■ 재료의 표면을 가공함.
아산 맹씨행단 (맹사성 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온한 느낌을 준다. ■ 2가지 색상을 사용함. ■ 명도와 채도의 차를 이용함. ■ 자연 재료를 사용함.
하회 충효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량하면서도 평온한 느낌을 준다. ■ 2가지 색상을 사용함. ■ 명도와 채도의 차를 이용함. ■ 자연 재료를 사용함.
창덕궁 낙선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도가 낮아 평온한 느낌을 준다. ■ 2가지 색상을 사용함. ■ 명도와 채도의 차를 이용함. ■ 자연 재료를 사용함.

한국민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하면서도 평온한 느낌을 준다. ■ 3가지 색상을 사용함. ■ 명도와 채도의 차를 이용함. ■ 자연 재료를 사용함.
창덕궁 연경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도가 낮아 평온한 느낌을 준다. ■ 2가지 색상을 사용함. ■ 명도의 차를 이용함. ■ 자연 재료를 사용함.

4.2. 분석방법

한 공간에 있어서 공간에 표현된 색채와 마감재는 그 공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공간을 분석하고 재조명해보는다면 전통성 표현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특성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공간이 가지는 색채효과를 분석하여 3장에서 고찰한 이론에 적용하여 요소를 찾아내었고, 마감재의 경우에도 3장에서 고찰한 이론을 바탕으로 전통공간에 사용되어진 마감재의 재질과 형태를 가지고 <표 8>과 같은 색채와 마감재의 분석틀을 작성하여 현대주거공간에 표현된 전통특성을 현대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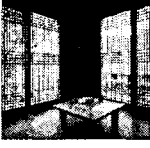
<표 8> 분석틀

현대주거공간	색채	사용색채
		분위기
	마감재	시선
		확장성
		거리감
		사용마감재
		천연자연재료
		인공재료

4.3. 현대 실내공간의 적용사례

<표 9> 현대주거공간의 전통성 표현특성

작품명	실내이미지	요소 및 표현특성
수백당 (승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 명량하고 평온한 느낌을 준다. ● 시선 : 바닥면의 채도가 높아 시선이 바닥으로 끌린다. ● 확장성 :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공간이 넓어 보인다. ● 거리감 : 색상이 밝고 채도가 높지 않아 멀어 보인다. (천장과 바닥, 벽과 벽) ● 2가지 재료를 사용하였다. ● 자연재료와 인공재료 모두를 사용하였다.
오치 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 채도가 낮아 평온한 느낌을 준다. ● 시선 : 바닥면의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아 주의를 끈다. ● 확장성 :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공간이 넓어 보인다. ● 거리감 : 색상이 밝고 채도가 높지 않아 멀어 보인다. (천장과 바닥, 벽과 벽) ● 2가지 재료를 사용하였다. ● 자연재료와 인공재료 모두를 사용하였다.

<p>옥련동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 명도와 채도가 낮아 평온한 느낌을 준다. • 시선 : 개구부의 색상을 진하게 하여 주의를 끌게 했다. • 확장성 : 바닥과 명도대비가 생기면서 확장되어 보이게 했다. • 거리감 : 벽과 천장의 명도가 높아 멀고, 높아 보인다. • 2가지 재료를 사용하였다. • 자연재료와 인공재료 모두를 사용하였다.
<p>자명당 (김홍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 명도가 낮아 평온한 느낌을 준다. • 시선 : 천장면의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아 주의를 끈다. • 확장성 : 벽은 명도가 높고, 천장은 채도가 높아 바닥과 명도대조를 이루면서 더 커 보인다. • 거리감 : 벽의 명도가 높아 넓어 보인다. • 3가지 재료를 사용하였다. • 자연재료와 인공재료 모두를 사용하였다.
<p>청송현, 능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 강하면서도 평온한 느낌을 준다. • 시선 : 천장의 보가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아 주의를 끈다. • 확장성 : 명도대비를 이용해 공간을 확장시켜 보이게 했다. • 거리감 : 바닥면의 명도가 낮아 가까워 보이고 벽과 천장은 명도가 높아 멀어 보인다. • 3가지 재료를 사용하였다. • 자연재료와 인공재료 모두를 사용하였다.
<p>하신리 주택 (김개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 명도가 낮아 평온한 느낌을 준다. • 시선 : 바닥면의 명도가 더 낮아 주의를 끈다. • 확장성 : 명도가 낮아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 거리감 : 명도가 낮아 공간이 길거나 높게 보이지 않는다. • 2가지 재료를 사용하였다. • 자연재료와 인공재료 모두를 사용하였다.

류의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고 2가지 정도의 마감재를 사용하여 공간이 어지럽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감을 끌어내었다. 재료사용에는 전통에서 사용되어진 마감재를 현대적인 성격에 맞게 가공 또는 인위적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질감이나 형태, 자연의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한국 문화 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 개발보급 연구방안, 1991.
2. 박영천, 한국건축 전통론 소고, 공간, 1975.9.
3. 송민구, 한국의 옛 조형의미, 기문당, 1987.
4. 이상해, 전통과 건축문화: 그와 상반되는 보편적인 문제점들, 건축과 환경, 8806.
5. 오인옥, 실내디자인방법론, 기문당, 2001.8.
6. 박영순 외 4인, 주거공간에 사용된 실내마감재 유행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제12호, 1999.7.
7. 한옥의 공간문화, 한옥공간연구회, 기문당, 2004.
8.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9. 신영훈·김대벽,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의 한옥, 현암사, 2000.

Web Site

1. <http://www.colorworld.pe.kr/>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현대주거공간에서 전통성표현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색채의 단순성. 전통공간에서는 색의 사용을 많이 하기 보다는 2가지 정도의 색을 사용하여 색채의 여러 가지 대비현상을 사용하여 공간을 꾸미고 있었는데, 현대주거공간의 전통성 표현에서도 이와 같이 2가지정도의 색채를 사용하여 전통공간과 같은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둘째,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색채의 명도나 채도를 사용하여 온화하고 평온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람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안락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바닥의 채도를 벽보다 높게 하여 사람의 동선을 먼저 이끌어주는 색채의 구성을 볼 수 있다.

셋째, 방의 공간이 비록 좁은 공간에서는 넓은 공간으로, 넓은 공간에서는 더 넓은 공간으로 보여 지기 위해 벽과 천장의 색채를 통일하고 명도가 밝은 색을 사용하여 확장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근대적 재료의 표현. 마감재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중